

# 肝氣鬱結의 辨證에 關한 文獻的 考察

金炳三 · 金東佑 · 李長勳 · 禹弘楨 · 金秉雲

## I. 緒 論

肝氣鬱結과 關聯한 證候로는 肝鬱氣痛, 肝鬱脇痛, 肝氣脇痛, 肝鬱脾虛, 肝胃氣痛, 肝氣犯胃, 肝氣犯脾, 肝鬱行經不孕, 肝鬱行經先期, 등이 있으며, 氣鬱, 濕鬱, 血鬱, 氣結, 氣滯, 氣火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은 肝氣鬱結과 大同小異하다<sup>주1)</sup>.

肝의 生理的인 特性은 喜條達하고 惡抑鬱하며, 疏泄과 藏血을 主하는 機能이 있어 人體의 氣機를 條暢 暢達하는 機能을 遂行한다. 肝氣鬱結은 肝의 疏泄機能의 失調로 因하여 發生되는 病證으로 疏泄失常은 주로 精神의 原因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人體의 氣機循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疏泄機能은 各種 氣機를 條暢시켜 情志安靜과 新陳代謝를 圓滑하게 하고, 脾胃의 升降降濁과 膽汁分泌 및 排泄을 도와 助養消化하며, 人體內 氣血循環에 關與하고 있다<sup>주2)</sup>.

따라서 疏泄機能이 失調되면 氣機의 條暢失調와 膽汁의 分泌 및 排泄失常, 精神抑鬱

혹은 躁急易怒 等 精神活動과 關聯하는 徵候가 나타나며, 肝氣鬱結은 肝臟 뿐만 아니라 他 臟器의 機能에도 영향을 미쳐 그 症狀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著者は 文獻考察을 통해 肝氣鬱結의 原因과 病理機轉, 症狀 및 辨證에 關하여 整理하여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肝氣鬱結의 病因 病理

肝氣鬱結은 주로 疏泄機能의 失調에 기인하는데 疏泄기능의 失調는 情志不暢, 鬱怒所傷 등 주로 精神的인 要因에 의한다<sup>주3)</sup>. 즉, 外界의 刺戟으로 大怒하거나 過度하게 抑鬱되면 氣機의 升發과 條暢이 안되어 疏泄기능이 失調된다. 怒는 肝木의 情志로서 內經에서 “暴怒傷肝” <素問.五運行大論>, “暴怒傷陰” <素問.陰陽應象大論>, “肝氣虛則恐, 實則怒” <靈樞.本神扁>, “怒則氣逆, 甚則嘔吐及殮泄, 故氣上逆” <素問.舉痛論>, “血有餘則怒氣不足則恐” <素問.調經論>, “大怒則 血氣絕而血苑而上 使人薄厥” <素問.生氣通天論><sup>주4)</sup>, 이라하여, 怒와 肝과의 相關關係에 대해서 過度하게 怒하면 肝의 기능을 傷게하여 氣機

주1) 宋鷺水, 中醫病因病機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201

柯雪帆 主編, 中醫辨證學,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7, p.172

陳繼明, 肝炎與肝硬化的中醫辨治,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88, P.10

주2) 金賢濟, 洪元植 編譯, 韓醫學事典, 서울 成輔社, 1983, pp.126-130, 227-230

中醫研究院, 廣東中醫學院 合編, 中醫名詞述語事典, 商務印書館, 1979.

金秉雲, 禹弘楨外, 肝系內科學, 東洋醫學研究院, 1989, pp.25-26

주3) 宋鷺水, 前揭書, p.201

柯雪帆, 前揭書, p.172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85, p.141

주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 p.16, 23, 145, 2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 p. 68

가 冲上하여 肝氣가 横逆한다고 하였다<sup>주5)</sup>. 또 東醫寶鑑에서는 “大怒氣逆 及謨慮不決 皆令肝火動心脇痛” <氣鬱脇痛><sup>주6)</sup>이라 하여 怒뿐만 아니라 精神的 抑鬱로 氣機가 鬱結된다 하였다. 또한 外邪의 侵襲이나 陰血이 不足하여도 津血의 流通이 不暢하여, 瘀血과 痰濕이 肝經에 鬱滯되거나 肝을 濡養하지 못하여 疏泄이 失調된다 하였다<sup>주7)</sup>. 이와 같이 情志失調, 濕熱의 外侵, 陰血不足은 肝의 疏泄機能을 失調케 하여 肝氣鬱結을 유발한다.

한편, 泰伯未는<謙齋醫學稿論肝病>에서 疏泄機能이 不及하여 消落한 性質의 肝氣鬱結이 되고, 疏泄기능이 太過하면 亢奮하여 横逆한다고 하였고<sup>주8)</sup>, 章眞如도 肝은 喜條達하고 動하기를 좋아하며 靜하기가 어려우므로 疏泄이 太過한 機轉은 實證으로 많이 나타나며 疏泄機能이 不及하면 感覺, 運動, 情神 등에서 衰弱한 症候가 나타난다고 하여, 疏泄不及 肝氣鬱結과 疏泄太過 肝氣亢奮으로 나누어 分類하였다<sup>주9)</sup>.

이와 같이 疏泄機能의 失調로 因하여 肝氣가 鬱結되고, 肝氣의 鬱結이 精神 및 肝의 機能系, 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타 臟腑에 까지 영향을 준다는 일반적인<sup>주10)</sup> 理論과 달

리 泰, 章, 陳 등은 肝氣鬱結은 疏泄機能의 不及에 의해서 발생하며 疏泄機能의 太過는 肝氣의 亢奮을 유발한다고 하여 肝氣鬱結을 疏泄機能의 不及으로만 限定시켰다.

그러나 疏泄太過 肝氣亢奮된 상태에서 유발되는 肝氣上逆, 肝氣下逆, 肝氣犯胃, 肝氣乘脾 等도 症狀에서 볼 때 肝氣鬱結의 症狀을 兼하고 있다<sup>주11)</sup>. 그러므로 이들도 肝氣鬱結의 範疇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疏泄의 太過, 不及이 모두 肝氣鬱結의 原因이 되며 發現하는 症狀에 따라 肝氣鬱結의 辨證이 細分된다 하겠다.

## 2) 肝氣鬱結의 病證

### <표1> 肝氣鬱結의 症狀

\* 中醫基礎學<sup>주12)</sup>

精神情志方面: 精神抑鬱, 或性情急躁, 外界의 輕微한 刺戟에도 激烈한 情緒的 反應을 나타 낸다.

氣機失調方面: 胸脇竅痛, 或胸脇脹痛, 胸悶, 脈弦.

膽汁分泌失調方面: 嘔吐苦水黃汁, 或黃疸.

\* 東醫病理學<sup>주13)</sup>

情志抑鬱, 易怒, 胸悶而喜太息, 胸脇, 乳房, 少腹脹痛, 痛經, 月經不調, 苔薄, 脈弦, 或咽中如梗, 吞之不下, 吐之不出(梅核氣), 頸項癭瘤, 腹部癥瘕

주5) 楊醫亞 主編, 中醫問答(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 53

주6)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0, p. 280

주7) 柯雪帆, 前掲書, p. 172

宋鷺水, 前掲書, p. 201

주8) 朴王用의 2人, 肝의 機能에 關한 文獻的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1990, 제5권, 제1호, p. 65에서 再引用.

“肝氣鬱結與 一般肝氣症 恰恰相反 肝氣症 是作用太强 疏泄太過 故其性横逆; 肝氣鬱結 是作用不及 疏泄不能 故其性消沈 同時以肝氣症能犯胃克脾 出現消化不良等症 乃屬 木旺克土; 肝氣鬱結也 能影響中焦 出現肥滿等 脾胃症狀 則系木不疏土”

주9) 章眞如, 肝膽論,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6, pp. 8. 32

陳繼明, 前掲書, P. 4

“疏泄太過則肝氣鬱結; 疏泄不及 則肝氣鬱滯”

주10) 金完熙, 崔達永, 前掲書,

金秉雲, 禹弘楨 外, 前掲書, p. 44

文濬典, 安圭錫, 崔昇勳, 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1990, p. 333

柯雪帆, 前掲書,

中國中醫研究院 主編, 中醫症狀鑑別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주11) 金秉雲, 禹弘楨 外, 前掲書, pp. 45-46

주12) 上海 中醫學院, 中醫學基礎, 商務 印書館, 1981, 香港, p. 186

주13) 文濬典, 安圭錫, 崔昇勳, 前掲書, p. 333

\* 臟腑辨證論治<sup>주14)</sup>

肝氣鬱結：胸脇脹滿，鬱鬱不樂，多疑善慮，甚則沈悶欲哭，月經不調， 때로는鬱이 오려 되어 熱로 化하기도 함.

肝氣興奮：躁急易怒，失眠多夢，頭暈目眩，耳鳴耳聾。

\* 證治心法要訣<sup>주15)</sup>

肝氣鬱結情志病，因鬱結滯怒火形，鬱則氣悶結則痛，怒則氣衝火熱盛，胃痛脾虛經脈病，梅核多見婦女中。

\* 肝炎與肝硬化的中醫辨治<sup>주16)</sup>

脇痛 胸悶 口苦納差 精神抑鬱 苔白脈弦。脇痛持續 肝大壓痛 脈弦而澀 苔薄舌色紫暗 或舌有瘀斑 多屬肝鬱日久 氣滯血瘀之證。

\* 中醫病因病機學<sup>주17)</sup>

情緒抑鬱 則肝氣鬱結 疏泄失常 而現煩躁易怒 容易生氣 或 情志抑鬱 悶悶不樂 胸脇脹滿等 症象。肝失疏泄 一般常程悶悶不適 善太息 甚則氣滯不通而胸脇。乳房。少腹。腰。骶脹痛，或月經不調與痛經等症狀；或現神氣內鬱 情志不舒 抑鬱寡歡；或對外界刺激不能控制 和調節 以致氣血失調 木失和柔 肝氣上逆 甚則肝陽暴脹 引起暴怒 暴厥等 強烈的情志反應。

\* 中醫優生長壽法<sup>주18)</sup>

肝氣鬱滯 疏泄不及可見血行澀滯 精神壓抑 鬱鬱寡歡 胸脇脹痛 婦女經水不利 發生神經衰弱 婦女月經病等。肝氣過亢 疏泄太過 程肝火上炎 可見情緒急躁易怒 心煩不安 頭痛 目赤

甚則吐衄 衄血 或卒然昏仆 不知人事等 或發生 高血壓 出血 腦卒中等病。肝氣鬱結 脾不升清 在上可見眩暈 氣短不足而息；在中可見不飢食 少或食後腹脹；在下可見殮泄 脫肛 發生低血 壓 低血糖 內臟下垂等疾患。

\* 中醫證候鑑別診斷學<sup>주19)</sup>

精神抑鬱 胸脇脹悶 或疼痛 善太息 或乳房， 少腹脹痛 大便失常 月經不調 苔薄 脈弦。

\* 肝膽論<sup>주20)</sup>

肝疏失調 鬱於本經 可見脇痛 乳脹 乳核等 肝氣鬱結之證 疏泄失常 則易引起情志之異常變 化。疏泄不及 則表現為抑鬱類型 如孤僻寡歡 胸悶脇脹 噯噫太息 鬱鬱不樂也 可肝血不榮之 頭昏眩暈 神疲夢擾。疏泄太過 則表現為興奮 亢進類型 如急躁善怒 目赤 脇痛也 可導致肝 不藏血的吐血衄血。肝氣鬱結則氣滯 氣滯則血 海脈絡不利 可見痛經 乳脹。疏泄失調則 可見 經行愆期。

肝氣鬱結，疏泄不及：胸脇脹滿疼痛 精神抑鬱 不快 沈默寡歡噯氣嘆息 或多疑善慮 或愁苦欲 泣 等症。乳房。少腹脹痛 以及痛經等症。病 延日久 氣機鬱滯 血行難澀 而成瘀積可形成癥 瘕痞塊 婦女經閉等症。往往見於 月經後期 經 行腹脹 痛經 等症。

肝氣亢奮，疏泄太過：急躁易怒 失眠多夢 頭 暈頭脹 目眩 等症。氣血逆亂 於上則吐血 咯 血 衄血於下則月經過多 崩漏淋漓不淨。月經 先期 量多或崩漏 以急躁心煩 口苦 等症。

\* 臟象學<sup>주21)</sup>

肝의 疏泄機能이 약해지면; 胸脇.乳房 혹은 아랫배 등의 국부에 불쾌한 脹痛이 나타난다

주14) 金完熙, 崔達永, 前揭書, pp.141-145

주15) 盧第, 證治心法要訣, 青海人民出版社, 1985, p. 312

주16) 陳繼明, 前揭書, pp.23-24

주17) 宋鷺水, 前揭書, p.201

주18) 史方奇 外2人, 中醫優生長壽法, 重慶, 科學 技術出版社重慶分社, 1988, p.24

주19) 中國中醫研究院 趙金鋒 外, 前揭書, p.106

주20) 章真如, 前揭書, pp. 8, 32-34, 4-5

주21) 朴贊國 編譯, 臟象學, 成輔社, 서울, 1992, pp.182-184

情志가 편안치 못하므로 우울해지고 감상적으로 된다.

\* 中醫學問答<sup>주22)</sup>

情志抑鬱 多疑善忘 甚則悶悶欲哭 胸脇脹滿作痛 少腹脹痛 婦女痛經或經前乳房作脹 身顫肢麻 兩手拘急 胸滿氣梗 甚則昏厥 咽中如梗 吞之不下吐之不出癆瘵

\* 中醫辨證學<sup>주23)</sup>

精神抑鬱或易怒 胸悶 脇脹 脈弦 精神抑鬱 沈悶 善太息 或急躁易怒 胸脇少腹脹悶或竅痛 咽中梗阻 自覺有物 吞之不下 吐之不出 或乳房結核 或頸部癭瘤 婦女月經失調 痛經 經期乳房脹痛 腹部積聚等.

\* 類證治裁<sup>주24)</sup>

鬱則經氣逆 爲噎 爲脹 爲嘔吐 爲暴怒脇痛 爲胸滿不食爲殮泄 爲醫疝 皆肝氣橫結也

\* 丹溪心法<sup>주25)</sup>

氣鬱者 胸脇痛 脈沈澁

\* 赤水玄珠<sup>주26)</sup>

肝鬱者 兩脇微膨 暖氣 連連有聲

肝氣鬱結의 病症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1> 疏泄機能의 失調는 주로 情神적인 原因에 의하여, 氣機가 鬱滯되고 情志가 失調되는 情志變化가 나타나 沈鬱, 抑鬱, 太息, 躁急易怒등이 나타나고, 肝經이 少腹을 지나 兩脇을 지나게 되므로 肝經이 鬱滯되면

胸脇, 少腹이 脹悶疼痛한다. 肝經과 衝任二脈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肝氣가 鬱滯되면 衝任脈이 같이 손상을 받게 되고 “氣帥血使”<sup>주27)</sup> 하므로 女子의 月經不調 혹 痛經이 나타나며 乳房脹痛이나 乳房腫塊가 나타나게 된다. 肝氣鬱結은 成年에 多發하며 특히 女性에서 현저하며 七七之年에 任脈이 虛하고 太衝脈이 衰少하여 天癸가竭하고 地道가 不通하여, 情緒가 쉽게 激動하고, 喜悲傷欲哭, 煩躁不安, 心悸失眠, 健忘, 耳鳴, 眩暈 等症이 나타나게 된다<sup>주28)</sup>. 이는 外臺秘要에서 “男屬陽 得氣易散, 女屬陰 得氣多鬱”이라 한 바와 같이 女性은 鬱結되기 쉬운 屬性을 가지고 있다.

症狀를 각 部門別로 整理하면 本經鬱滯, 氣機不暢, 精神情志活動, 水穀運化機能및 婦人月經障礙 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本經鬱滯

肝經은 足大趾外側端에서 起始하여 大腿內側을 따라 上行하여 陰器를 돌아 관통한 다음 少腹을 지나 兩脇肋部에 分布 後, 喉嚨의 後部를 따라 上行하여 目系에 이어지며 頭頂部로 직행한다. 肝經이 鬱滯되면 本臟本經部位에서 開始하여 兩脇脹痛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少腹 脹悶疼痛, 乳房結塊頸部癭瘤가 나타난다. 循經擴散하여 上으로는 胸膺에 미치고 下로는 前陰部에 이른다<sup>주29)</sup>.

② 氣機不暢

肝氣는 肝의 精氣로서 肝의 疏泄機能을 遂行하며<sup>주30)</sup>, 疏泄機能은 肝氣의 升發과 함께 舒暢, 開展, 調達, 宣散, 流通 等 종합적 생리기능을 의미한다. 따라서 氣機不暢하면 脈道가 不利하여 血行이 不暢하여 胸脇脹滿疼

주22) 楊醫亞, 前掲書, pp. 53, 111

주23) 柯雪帆, 前掲書, p.172

주24) 林佩琴, 類證治裁, 서울, 成輔社, 1980

주25)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成文化社, 1990, p.515

주26) 孫一奎, 赤水玄珠, 海著易堂藏版, 1914

주27) 洪元植, 前掲書.

주28) 中國中醫研究院 主編, 前掲書, p.106

주29) 楊醫亞 主編, 前掲書, p.111

주30) 金秉雲, 禹弘楨 外, 前掲書, p.24

痛, 乳房少腹脹痛, 痛經 등이 나타나고, 오래되어 氣滯하면 血行이 難澁하여 瘀積을 형성하여 癥瘕, 痞塊, 經閉 등이 나타난다<sup>주31)</sup>.

### ③ 精神情志活動

心藏神하고 肝藏魂하며 肝과 心包는 같은 厥陰經에 속하므로 精神情志活動은 心과 肝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肝者將軍之官 謀慮出焉” <黃帝內經 素問. 靈蘭秘典論篇>이라 하였다<sup>주32)</sup>.

胸悶脇脹 噯噫太息 鬱鬱不樂 眩暈 疲勞 夢擾 急躁易怒 失眠頭痛, 上逆하면 目赤脇痛 吐血衄血等.

### ④ 水穀運化機能

水穀의 運化는 胃主納하고 脾主運하므로 脾胃의 消化吸收 과정에서 肝의 疏泄機能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五行의 肝木과 脾土의 관계에서 “木得金而伐 火得水而滅 土得木而達 金得火而缺 水得土而絕” <黃帝內經 素問. 寶命全形論篇><sup>주33)</sup>이라 한 바와 같이 “土得木而達”이나 “食氣入胃 散精於肝” <素問. 經脈別論>은 肝의 疏泄作用에 의해 消化와 吸收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疏泄機能이 失調되면 噯氣 脘痞 嘔惡 納減等 肝脾不和之證이나 脘脹 便溏 腹滿 等 肝脾不和之證狀이 나타나게 된다.

### ⑤ 婦人月經障礙

肝主藏血하고 肝과 衝任脈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肝의 疏泄機能은 經血의 運行과 밀접한 關聯이 있어 肝氣鬱結하면 氣滯하고 氣滯하면 血海脈絡이 不利하여 痛經 乳

脹 經行愆期하고, 氣逆血亂하면 崩漏 吐衄하고, 氣虛血虧하면 經閉 經少하게 된다<sup>주34)</sup>.

### 3) 肝氣鬱結의 辨證

病症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症狀은 다양하게 나타나나 肝氣鬱結은 實證에 屬하며<sup>주35)</sup> 肝木이 太過하여 脾土를 害하면 腹痛 泄瀉하며 肝氣犯胃 或 肝氣乘脾하게 되고 肝氣鬱結이 鬱久而火하면 肝火上炎으로 傳變하게 되므로 文獻에 따라서는 이 症狀들이 섞여 나타난다. 肝氣가 本經에 鬱結한 것이 다른 原因을 동반하거나 日久하면 복합적인 症狀을 띠게 되는데 대체로 아래와 같이 分類할 수 있다.

肝氣鬱結이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肝氣가 激動되면 肝氣가 上逆하는 형태로 나타나며<sup>주36)</sup>, 정신적 抑鬱로 肝氣 不暢으로 인한 때는 氣滯血瘀 痰氣鬱結 등의 症狀으로 발현하게 되며, 日久하여 脾土를 乘하면 肝氣乘脾 肝氣犯胃등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肝氣鬱結의 症狀은 鬱於本經한 경우와 日久하여 나타나는 경우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日久하여 氣機不暢할 때에는 痰氣鬱結이나 氣滯血瘀로<sup>주37)</sup>, 氣機亢奮할 때는 肝氣犯胃, 肝氣乘脾 또는 肝氣上逆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氣機升降의 太過와 不及에 따라 細分하여 辨證하여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주34) 章眞如, 前掲書, pp. 4-5

주35) 金完熙외 3人編著, 漢醫學概論, 서울, 成輔社, 1982, pp. 40, 324

주36) 金秉雲 外, 前掲書, p. 46

주37) 陳繼明, 前掲書, P. 24

주31) 章眞如, 前掲書, p. 33

王肯堂, 六科準繩, 서울, 柳林社,

“夫氣陽也, 血陰也, 陽動則陰隨, 氣運則血行, 陽滯則血凝, 氣弱則血死.”

<證治準繩 傷醫 腫瘍>

주32) 章眞如, 前掲書, p. 4

주33) 洪元植, 前掲書, p. 86, 97

## III. 結 論

肝의 疏泄機能의 失調로 인한 肝氣鬱結의 病因 病機, 症狀 및 辨證에 關하여 文獻考察

<표2> 肝氣鬱結의 辨證

鬱於本經	精神抑鬱, 多憂善忘, 或性情急躁, 胸悶, 喜太息, 胸脇, 乳房少腹, 腰, 抵脹痛, 乳脹, 乳核, 口苦, 月經不調, 苔薄, 脈弦.	
氣機不暢	痰氣鬱結	或咽中如硬 吞之不下 吐之不出(梅核氣)
	氣滯血瘀	脇痛持續, 肝大壓痛, 脈弦而澀, 苔薄舌色紫暗痛經, 乳脹, 經行腹痛, 或舌有瘀斑, 頸項癭瘤, 腹部癥瘕
氣機亢奮	肝氣上逆	躁急易怒, 暴怒, 失眠多夢, 頭暈目眩, 耳鳴耳聾 目赤, 脇痛, 頭脹, 月經先期 量多或崩漏, 心煩
亢奮	肝氣犯胃	不飢食少或食後腹脹, 噯氣 連連有聲嘔吐. <sup>38)</sup>
	肝氣乘脾	眩暈 氣短不足而息, 爲噯 爲脹 爲嘔吐 爲暴怒 脇痛 爲胸滿不食 殮泄 爲臌疝

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肝氣鬱結은 怒를 비롯한 情志의 失常으로 疏泄機能이 太過 혹은 不及으로 因하여 발생한다.
2. 肝氣鬱結의 病機가 氣機不暢에 起因하면 痰氣鬱結, 氣滯血瘀 등이 나타나고, 氣機亢奮에 起因하면 肝氣上逆, 肝氣橫逆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肝氣鬱結의 症狀은 크게 本經鬱滯, 氣機不暢, 精神情志活動, 水穀運化機能, 婦人月經障導로 分類할 수 있으며, 主要 症狀으로는 ① 本經鬱滯 : 胸悶脇脹, 脇痛, 乳脹, 少腹脹痛. ② 氣機不暢 : 脇痛, 脇下有積塊, 或舌有瘀斑, 脈弦而澀. ③ 精神情志活動 : 精神抑鬱, 鬱鬱不樂, 急躁易怒, 善太息, 失眠多夢, 梅核氣. ④ 水穀運化機 : 噯氣, 胃脘痞悶, 嘔吐, 殮泄. ⑤ 婦人月經障導 : 月經不順, 生理痛, 崩漏, 吐衄, 經閉 등이 나타날 수 있다.
4. 肝氣鬱結의 辨證은 鬱於本經, 氣機不暢 및

주38)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大成文化社, 1988, p. 425  
 “氣逆作嘔吐者 多因鬱怒 致動肝氣 胃受肝邪 所以作嘔”

氣機亢奮으로 辨別할 수 있고 氣機不暢은 痰氣鬱結과 氣滯血瘀로, 氣機亢奮은 肝氣上逆과 肝氣橫逆으로 細分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肝氣鬱結의 病因 病機, 症狀 및 辨證을 整理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臨床에서의 運用도 그 病因 病機와 辨證에 따라 細分되어야 할 것으로 思慮되며 이에 關한 研究도 進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1. 金秉雲, 禹弘楨 外, 肝系內科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9, p. 46
2.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1985, p. 141, 145
3. 金完熙의 3人 編著, 漢醫學概論, 서울, 成輔社, 1982, pp. 40, 324
4. 金賢濟, 洪元植 編譯, 韓醫學事典, 서울, 成輔社, 1983, pp. 126-130, 227-230
5. 文濬典, 安圭錫, 崔昇勳, 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1990, p. 333
6. 朴王用의, 肝의 機能에 關한 文獻의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1990, 제5권, 제1호, p. 65
7. 朴贊國編譯, 臟象學, 成輔社, 1992, pp. 182-184
8. 王肯堂, 六科準繩, 서울, 柳林社, 1975,
9. 林佩琴, 類證治裁, 서울, 成輔社, 1980,
10.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大成文化社, 1988 p. 425
11.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成文化社 1990, p. 515
12.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0, p. 280
13.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 素問, 서울, 東洋醫學, p. 16, 23, 86, 97, 145, 216, 236,
1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 靈樞, 서울, 東洋醫學, p. 68
15. 柯雪帆, 中醫辨證學, 上海中醫學院出版社

- 1987, p.172
16. 盧第, 證治心法要訣, 青海人民出版社, 1985, p.312.
  17. 史方奇 外2人, 中醫 優生長壽法, 科學技術出版社重慶分社, 1988, p.24
  18. 上海中醫學院, 中醫學基礎, 商務印書館, 1981, 香港, p.186
  19. 孫一奎, 赤水玄珠, 海著易堂藏版, 1914.
  20. 宋鷺冰, 中醫 病因病機學, 人民衛生出版社, 1987, p.201
  21. 楊醫亞, 中醫學問答 (上冊), 人民衛生出版社, 1985, pp.53, 111
  22. 章真如, 肝膽論, 湖北 科學技術 出版社, 1986, pp. 8, 32-34, 4-5
  23. 中國中醫研究院 趙金鋒外, 中醫證候鑑別診斷學, 人民衛生出版社, 1987, p.106
  24. 中醫研究院, 廣東中醫學院 合編, 中醫名詞述語事典, 商務印書館, 1979.
  25. 陳繼明, 肝炎與肝硬化的中醫辨治,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88, p. 4, 10, 23, 24.